

함내라! 대구·경북

격려·구호물품 줄이어... 피해 돕기 '한마음 한뜻'

“확산 방지위해 일사불란하게 힘 모아야”

“어렵고 힘든상황, 슬기로운 극복에 최선”

재계

재계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GS그룹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허태수 GS 회장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GS는 특히, 대구 경북지역 재난 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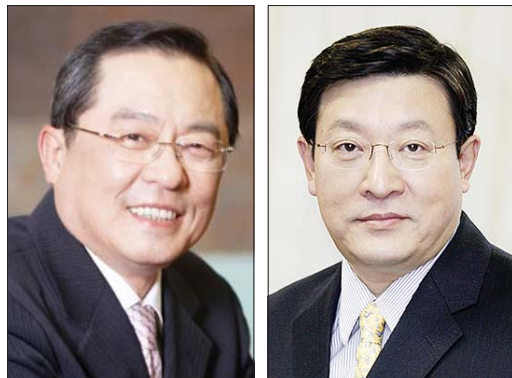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19'의 조속한 종결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효성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과 의료용품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지역에 의료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 임직원들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LS그룹 역시 같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구자열 LS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을 기탁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과 의료 물품,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이번 감염증으로 직·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취약 계층도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윤·김재웅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은행들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7일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성금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을 위한 실질적 물품지원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의료용품과 방호복, 마스크 등의 기본 물품은 물론 의료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의료진 건강식 품키트를 포함한 구호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금융티아이 등 관계사들도 이번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이다.

하나은행은 대구·경북지역의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음식점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납입한 출연금 외에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19 피해기업특별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오경근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7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신선식품 폐기액 지원... 마스크·생필품 전달 등 '온정의 손길'

유통가

CJ그룹, 재해구호협회에 10억 기부 현대백·신세계그룹도 긴급지원 나서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가맹점 휴점 등 피해복구 물심양면

명륜당, 522개 가맹점 월세 지원 더벤티, 430개 가맹점 로열티 면제



25일 동아오츠카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혈액 수급난을 지원하기 위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제너시스BBQ그룹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대구·경북지역 패밀리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제너시스BBQ

유통업체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 등으로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통채널에서부터 프랜차이즈업체까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 그룹사도 피해 복구 팔 걷어붙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코로나19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격

리환자·취약계층 식사를 위해 햇반컵밥 등 가정간편식 1만5000개와 마스크·향균물티슈 1만 개 등을 전달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

억 원의 성금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 인력과 소외 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또한대구·경북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1억 원 규모 위생 용품을 긴급 지원한다.

◆ 편의점 본사, 가맹점주 위한 대책 마련 BGF리테일·GS리테일·세븐일레븐·이마트24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점한 점포를 대상으로 신선식품 폐기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CU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의심자

수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 대한 본사가 전액 부담해 민간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세븐일레븐은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대구 및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확보한 마스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GS리테일은 휴점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휴점 점포를 위한 판촉 예산도 편성했다.

이마트24는 방역 후 휴점기간이들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상품 결제대금 조기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 ‘방역’부터 ‘월세’까지 지원

명륜진사갈비 본사명륜당은 최근 전국 522개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23억원에 달하는 한 달 월세 전액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에서는 가맹점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6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더벤티는 전국 43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월 로열티 전액을 면제하는 한편 물류비용의 10%를 인하한다. 더벤티는 각 가맹점의 피해 규모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3월 내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맘스터치는 전국 가맹점을 확진·심각·주의 등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확진’으로 분류해 자발적 휴점과 추가 방역을 진행하고 매출 피해를 위로하는 차원으로 소정의 격려금 및 물품 대금을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kmj@